



< STX엔진 부스 사진 >

STX엔진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가한다.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는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역대 최대 규모로 26개국 44개 대표단이 방문하고 362개 국내 방산 기업과 14개국 38개 글로벌 방산 기업도 참가한다.

STX엔진은 최근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자주포 1000마력급 디젤엔진을 개발 착수 후 3여년 만에 시제품 제작과 개발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이집트 수출 양산을 준비중인 SMV1000 디젤엔진 모형을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SMV1000 디젤엔진은 해외 선진업체의 동일 출력대 엔진과 비교하여도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STX엔진은 기존 기계식 엔진 단종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궤도차량용 전자식 범용 디젤엔진 모형과 전차 방호력 및 기동력 향상을 위해 독자 개발하고 있는 SMV1360엔진 실물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지상 전투 장비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모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용 장비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상태 기반 정비를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로, 연료 효율성 향상과 함께 순간 가속도 향상 및 최적의 정비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해안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고해상도와 고정밀 레이더인 해안 감시 레이더-II도 전시한다.

STX엔진은 1976년 쌍용중공업으로 출범하여 1977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약 50여년 방위사업 전문 디젤엔진 업체로 성장하였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그리고 해군의 주요 전투함, 경비

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에 장착되는 고속디젤엔진을 국산화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 방위산업용 엔진 생산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무기체계의 운영 변화에 대응하고, 폴란드, 호주, 인도 등 9개국에 안정적으로 엔진을 공급하여 K-방산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수 STX엔진 대표이사는 "STX엔진은 국내 최대 방위산업용 디젤엔진 전문업체로 과거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형태에 벗어나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국내 연구개발업체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금번 전시회에 STX엔진이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선진 국산화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